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2주일

제35권 30호(나해) 2015년 6월21일

[묵상]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날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길이었습니다.

모래밭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자기 발자국 그리고 주님 발자국.

되돌아 본 모래밭 위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머물렀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슬픈 순간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 당신을 따를 결심을 했을 때,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나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시곤,

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내 가장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어찌 나를 떠나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너 어려울 때, 나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 너를 등에 업고 갔었노라.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거늘...."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10:00 8:00 8:00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에 M.E. Sharing(3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4:30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오후 특전미사후	10:00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8:30 9:00 1:00 10:00 1:45 1:00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삭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권순봉 안나
	(생)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상진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최병오 & 김금례, 이중수 마틴, 구연석, 김 유리파, 김재원 & 현간난 & 김형진, 주안나
	(생)서성용 베드로 & 서용숙 에스텔, 손왕업 율리암, 이태옥 아가다, 이 아가토 & 이루시아, 엄주현 올리안나, 김남호 올리오 & 최운정 래지나,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욥기 (Job) 38, 1.8~11

화답송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 하여 - 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 하시 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
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
을 보았네.○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
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
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
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게 베푸신 그 기적을.○

제 2독서 코린토 2서(Corinthians) 5, 14~17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마르코(Mark) 4, 35~41

영성제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192	200
봉헌	왜	270	265
성체	376	304	281
파견	378	200	251

열정적인 사랑의 소유자, 야곱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이사악의 아들이며 히브리민족
의 세 번째 성조입니다. 그는 단순하지 않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생 때부터 쌍둥이 형 에사우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으니 그 시작부터 그의 전 생애는 기복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과정은 교활합니다. 그는 어떻게 장자권을 몰래 가지게 되
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27,1-46

야곱은 형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탈취한 후 후환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라헬과의 첫 만남은 우물가에서 극적
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라헬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
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의 일을 머슴처럼
불철주야 열심히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라헬
과 혼인식을 치르고 첫날밤을 지내고 난 뒤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그는 왜 놀랐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29,1-30

에사우를 만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 넓적다
리를 다치지만, ‘하느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뜻으
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땅과
후손을 약속받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야곱은 하느님
의 축복도 인내와 열성으로 얻어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있는 허벅지 힘
줄을 먹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천사와 어떻
게 씨름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32,1-33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속이
다’ 등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꾼처럼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
닙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에사우와 경쟁
하면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미움을 산 형을 피해 도
망쳐 20년 후에는 결국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까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는 사랑을 하는 데,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에도 항상 열정적이었고 끈기있게 행동했습니다. 인간의 열
정에는 하늘도 감동하는가 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을 하다 ()를 다치
게 되었다.”(창세기32,26)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해 주시지 않으면()않겠습니
다.’ 하고 대답하였다.”(창세기 32,27)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거센 폭랑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마르 4, 40 참조)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등 인간적으로 넘기 힘든 일 앞에서 우리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단 듯 멋진 항로만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한 폭랑을 만나기도 하며,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때도 있고 조난을 당하여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苦海)라고도 하고, 생활의 역경을 인생풍파라고 표현하며,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세파를 헤쳐나가는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풍파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육신사정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파, 재물이나 권세의 풍파, 건강이나 명예의 풍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영생의 풍파 등 여러 풍파를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 배를 호수 건너편으로 저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센 폭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

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마르 4, 37~38)

인간이란 한계상황에 직면해야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파선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되고 무엇이든지 잘 나갈 때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재정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을 체험할 때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풍파를 당할 때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께서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만 당신을 찾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 표중관 베드로 신부/ 연산성당 주임

새 머리라 흥봤지만

지나가다 새똥에 맞았다고 짜증 내지 말아야지.
새가 높이 날 수 있는 건 방광이 없기 때문이라니.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던 게야.
날기 위해 생각조차 덜어냈던 거지.
내가 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네.
위아래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날 수 있겠어.
걸는 것도 힘겨운 거, 그래서였나 봐.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송인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베드로 신부님, 요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 6월24일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로 손님신부님으로
 ☆ 저희 본당에 와계신 강동욱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 또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오창근 베
 ☆ 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 위해 기도 드립니다.
 ☆
 ☆*****

Happy Father's Day!

- 아버지 날을 맞아 백삼위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하시는 본당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본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하버 카슨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남가주 남성 제39차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식

- 수강자 : 김준 방지거
- 환영식 : 오늘주일(21일) 오후 4시, 강당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문의 : 남해나 분다 310)384-3289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오늘 주일(21일) 11시 미시후
- 장소 : 강당
- 정기총회 안건 : 신임회장 선출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 도시락, 물
- 문의 : 강아네스 ☎ (310) 780-0369

◆ 본당 수녀님께서 북미주 한인수도자 피정 참석 중이십니다.

- 일정 : 6월15일~6월25일
- 장소 : 시카고 피정의 집
- 이번 피정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1일(주일) *하버카슨: 강된장 열무콩보리밥(\$0)
* 주일학교 : 방학
- 6월14일(주일) * PV1반 : 미역국 (\$0)
* 주일학교 : 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순복 김대우 김민석 김상규 김성택 김영덕 김옥찬 김원호 김정희 김찬구 김학겸 남성철 민기남 박상준 박씨니 박영희 박완철 반정이 손 석 송재훈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엄정자 오수인 원건희 유근우 이경수 이귀분 이일길 이재철 장영우 장은희 정동호 정지숙 지경수 최길주 최의수 최이원 최진수 한창주 홍인표 황인중 황지영	김대우 김영덕 김원호 김찬구 남성철 민기남 박상준 박씨니 손 석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엄정자 오수인 원건희 유근우 이경수 이귀분 이일길 장영우 정동호 정지숙 지경수 최길주 최이원 최진수 황인중 황지영
합계:\$5,065	합계 : \$2,405
주일미사 헌금 : \$2,484	주보광고 : \$240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6일(금)~28일(주일)
26일 오후 2시부터 체크인을 시작하오니 늦지않게
아이들을 성당으로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수영복, 방한재킷, 주일헌금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 시간 :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청년 성령 기도회

청년들을 위한 기초성령세미나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7)

- 일 시 : 7월 10일(금)오후5시 ~7월 12일(주일)오후 4시
- 대상 :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피정지도 : Fr. Joe Kim
- 참가비: \$150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 Riverside
- 문의 : 김모니카 (310)999-1142
최루이스 (714)392-1732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전글라라(818) 317-6022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엄영희 베로니카 539-3377 6/10(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6/13(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2(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관 안토니오 780-3258 6/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자벳 991-8556	이명필 라파엘991-8556 6/13(토) 오후 7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변숙희 린다 617-1132 6/12(금)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조정석 수산나 625-3312 6/26(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6/2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3(토) 오후 7시
	2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6/12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6/20(토) 오전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체칠리아 617-3568 6/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요셉회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29> 최양업 토마스2. (1821~1861년)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계속 추적하는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스승 르그레즈 신부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1846년의 박해와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접한 최양업은 조선교회 밀사들의 만류로 귀국을 포기하고, 극동대표부가 있던 홍콩에서 「한국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후 상해로 거처를 옮긴 그는 1849년 4월 15일, 마침내 서가회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 최양업은 그해 5월, 요동 지방으로 옮겨 성인 베르뇌 신부 아래서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양업은 12월 3일, 조선교회의 밀사들을 만나 귀국에 성공했습니다. 최양업은 즉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만난 뒤, 각처에 숨어 있는 신자들을 순방하기 시작했는데, 1850년 초부터 6개월 동안 5개 도(道)와 5천여 리를 걸어 다니며 3,815명의 신자를 방문했습니다. 최양업의 이러한 사목 활동은 이후 11년 6개월여 동안 계속되는데, 물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자들을 순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인으로 오인 받아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포졸들의 습격으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859년에는 순방 도중 발각되어 포졸과 외교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주막에서 쫓겨나 반쯤 나체가 된 몸으로 눈 쌓인 밤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의 신앙과 조국애, 그리고 신자들을 향한 애정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양업은 한문 교리서와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했고, 선교사들의 입국을 도왔으며, 신학생들을 말레이반도에 있는 페낭 신학교로 보냈고,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1860년 경신박해의 고비를 가까스로 모면한 최양업은 베르뇌 주교에게 성무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자 길을 나섰다가 그만 과로에 장티푸스가 겹쳐 문경을 혹은 진천 배티 교우촌에서 선종했습니다. 이때가 1861년 6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베르뇌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신학교 교장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양업을 이렇게 기렸습니다. “최 토마스 신부는 신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불과 같은 열심, 그리고 무한히 귀중한 일에서는 훌륭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유일한 한국인 신부 최 토마스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성사 집행 뒤에, 내게 자신의 업적을 보고 하려고 서울에 오던 중, 지난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2

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양업의 선종 뒤 5개월이 지난 다음, 베르뇌 주교의 주례로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배론 신학교 뒷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위임

나쁜 문화들

[문화의 복음자리]

난 거기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난 괜찮아.

난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위험한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아.

하느님 감사하게도

난 괜찮아.

오늘도 드라마는 재미있고

심심한 저녁

차킨 집 전화번호를 찾으며

내가 가진 38평 크기의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난 괜찮아.

내가 괜찮을 때까지

난 괜찮아.

남들의 괜찮지 않음을 고려할 만큼

나에겐 능력도 없고

그래서 책임도 없으니

나로서는 나의 괜찮음이

그저 고마울 뿐.

들어다볼 만큼 한가롭지도 않고

따져 물을 만큼 편협하지 않은 나는

불편부당한 사람이고

세상은 나로 인해

털끝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

괜찮을 때까지 괜찮은 사람.

◆김상호 신부 / 신선성당 주임

[기도묵상]

아마도 가장 적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가장 적게 기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